



## 파산을 피하다 Bankruptcy averted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4 월 17, 2008

우리의 사업은 매일 매일 큰 걱정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미미한 자본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사업 전망도 좋았는데 갑자기 한 창고에서 우리 제품을 잘못 취급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제품은 더 이상 팔 수도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게까지 되었다.

우리는 많은 빛을 지게 되었는데 헤어날 길이 없어 보였다. 사실, 우리의 사정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파산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였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것도 기도의 인도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기업으로 인도하실 리가 없을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전망이 어둡게 보였던 어느날 나는 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기도를 도와 줄것을 요청하였다. 친구는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이사야 59 장 1 절) 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뒤 나에게 이 구절을 믿느냐고 물었다. 그 때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저의 모든 소망들을 항상 이루어 주셨음을 상기하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비교해 보면서 잠시 마음에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도와 오셨던 것처럼 우리 사업도 구제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대답했다.

그 때부터 나는 조용한 밤 시간에 사무실에 나가 그 날의 영수증들을 챙기고 꼭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을 알아 내기 위해 기도하는 등, 두려움없는 마음으로 일하였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를 창시하신 메리 베이커 에디의 저술 중 다음의 구절 - “완수해야 할 일들 가운데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완수할 수있는 길을 예비하고 있다. 지금 완수할 수있는 일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빛을 더욱 늘리는 것이다. 신성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상존하는 도움이 즉각 제공되며 살아 있는 현재에 역사하는 권능이 부여된다”( *The First Church of Christ, Scientist, and Miscellany*, p12)-은 우리 사업계획의 긴요한 뒤편이 되었다.

마음 속으로 나는 지불 불가능한 모든 청구서들을 하나님을 이름들 그 위에 적은 후 “퇴출” 박스 안으로 집어 넣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혜에 맡겨 버리는 한 편 지불 가능한 약간의 청구서들만 챙겼다.

때로는 장애가 나타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기도를 함으로써 영감을 받은 생각이 그 순간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제시해 주곤 하였다. “나는 바로 지금 감사할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

수 있다.” “나는 바로 지금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순응하자마자 장애들은 사라져 버려 내가 하던 일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보다 앞서 우리는 우리 농장들 중 하나를 팔려고 내 놓았었다. 자본금 마련이 급하여 이 농장을 시세보다 훨씬 더 낮게 내 놓았었다. 그러나 몇달이 지나도록 이 농장에 대해 물어 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일이 잘 진행됨에 따라 사업은 자금의 투입 없이도 건전한 재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 해 말까지 생산을 배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는 기업 영역의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경쟁업체 한 분에게 연락을 하여 그의 사업을 우리에게 팔 의향이 있으신가 문의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 분은 우리 사업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그 분은 좀 더 안정된 노동 협업이 필요한 상태였고, 우리의 새 생산 공장은 그 분의 공장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우리는 팔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깊은 기도를 위해 영업을 일주일 동안 중단하였다. 점차로, 우리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지평선이 전개되고 있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체를 팔았는데, 우리 직원 75명 모두를 새로운 사업주가 떠 맡는 등 아주 만족스런 조건들 하에서였다. 그 후, 그 분은 사업이 너무나 잘되어 만 2년 만에 모든 인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한 친구에게 말하였다.

한 편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들은 새로운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방면으로 각자 교육과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기회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자신의 경력도 역시 꽃을 피웠다.

하나님의 자제들은 “살아 있는 현재에 역사” 할 권능을 부여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우리가 성취하도록 길을 항상 예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